

살아가라, 세계가 우리에게 부여한 눈물의 흔적을 지닌 채, 불구의 손으로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며, 고집스럽게 행복을 맞이하라. 인간에게 형벌인 운명이란 없으므로 전력을 다해 행복해야 한다. 눈앞의 광명을 껴안고, 공허한 유토피아에는 희망을 두지 말고, 고개를 높이 든 채 살아가라. 살아간다는 것이야말로 부조리에 가장 유력한 반항이다.